

“나를 위한 ‘선물같은 시간’ 통해 행복 찾아요”

●김선시니어크리에이터

화순서 20년째 남편과 소키워...SNS 입문 뒤 ‘MZ세대 입소문’ ↑ 최근 인간극장·유병재 유튜브 등 출연...“긍정 에너지 전하고파”

“정신없이 바쁜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긍정의 비결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쇼츠(shorts : 스마트폰으로 보기 좋게 촬영돼 제공되는 짧은 동영상) 조회수가 300여만회를 넘어서는 등 핫(?)한 인물로 통하고 있는 김선(52·여·사진)씨는 22일 긍정 에너지의 원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화순에서 20여년째 남편과 함께 소사육을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지인을 통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알게 된 이후 틈나는 대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다.

김씨는 주로 직접 만든 철릭(조선시대 무관이 입던 공복 중 하나) 원피스를 입을 모습이나 여행, 음식, 반려식물 등 일상을 공유한다.

그러던 중 비자나무로 모자를 크게 만들어 쓴

영상이 MZ세대(1981~2010년생) 사이에서 “비자나무? 피자나무?” 등으로 번지면서 팔로워가 크게 늘었고, 영상 조회수도 훌쩍 뛰었다.

김씨는 자연을 소품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독특한 느낌을 풍기는 사진 또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김선만의 소녀감성’이라 부르고 있다.

김씨의 인스타그램에도 ‘소녀감성으로 살기’라는 문구와 함께 ‘평범한 주부지만 꿈많은 소녀감성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대로 실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요’라는 소개글이 걸려 있다.

김씨는 최근 ‘인간극장’, ‘유병재 유튜브’ 등에도 출연했다. 그 영향인지 동네 시장에만 가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고.

김씨는 “SNS를 알기 전까지는 남편과 함께 소사육 등 현생(?)을 사느라 나 자신을 챙길 새



가 없었다”며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것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는 마음이었지 별다른 목적은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좋아해주 감사할 따름”이라고 웃었다.

이어 “그동안은 인기를 실감하지 못했다”고 또 한 번 크게 웃었다.

그러면서 “최근들어 여기저기서 리브콜이 폭주하고 있다. 주로 유명 연예인, 방송 작가 등으로부터 오는 출연 요청 메시지들”이라며 “그런데, 일부이긴 하지만 ‘오늘 제 생일이니 축하한다는 영상을 촬영해 보내달라’ 등의 조금은 무례한 요구도 있어 고민스러울 때도 있다”고 유명세에 따른 고충을 귀띔했다.

김씨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보고 긍정의 에너지와 위안을 받아간다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힘이 난다”며 “댓글에 자신을 포함 4기 환자라고 밝힌 한 분은 ‘김선씨의 긍정의 메시지가 담긴 영상들을 보고 더 자주 웃게 되고 스스로도 힘을 내자 생각해버린지 모르겠으나 최근 증상이 호전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감사인사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열심히 영상을 만들겠다”며 “바쁜 현실 속에서도 나 자신을 위한 선물같은 시간을 통해 많은 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정기자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 재외한인학회 학술대회 참가



김일태(사진) 전남대 석좌교수는 재외한인학회(회장 김영연 교수)가 오는 28일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재외동포정책의 전망과 상생발전’이란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에 참가한다.

22일 김 석좌교수에 따르면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과 사회과학연구소·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 교수는 박석강 전남대 교수와 함께 ‘재외동포 기업가 김희수의 기업승계 전략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베트남 등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가해 7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재외한인사회의 역할, 외국인 유학과 귀환, 적극적인 이주민 유치 및 활용, 정착을 위한 한국 이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방안을 모색한다./김다이지



영광 백수파출소, 정성치안 활동 전개

영광경찰서 백수파출소는 22일 “지난 19일 백수읍 남자의용소방대 회의에 참석해 주민참여의견 수렴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정성치안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특히 실종자 발생 시 협력 치안을 통한 수색 지원 협조, 영농철 농기계 안전 운행, 이륜차 안전도 착용, 음주운전 근절과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예방법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여수교육지원청, ‘내고장학교보내기’ 협의회

여수교육지원청은 “최근 교육지원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중·고교 교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내고장학교보내기’ 사업 담당자 협의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관내 내고장학교보내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고교 선택을 위한 진로진학 정보 안내 ▲2025학년도 고교 입학전형과 대학입시 준비 방향 ▲내고장학교보내기 사업 안내 및 업무 협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여수=김진선기자

모임

▲담양 크린동우회(회장 박병근) 4월 모임=25일(목) 오후 6시30분 로빈식당, 담양군 월산면 도계길 15-69(총무 서동선 010-4602-9480).

행사

▲담양 대전농협 종합행사 및 영농자재백화점 준공기념식=26일(금) 오전 10시30분 대전농협 2층 대회의실, 담양군 대전면 추성리로 208 대전농협(조합장 최용규, 061-383-6791·3).

▲담양시장 개장기념식=26일(금) 오후 2-3시 담양시장 정문 광장, 담양군 담양읍 담주4길.

결혼

▲김경윤(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이태복씨 장남 태홍(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군, 노수근·이명자씨 장녀 지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양=28일(일) 낮 12시30분 센트럴광주호텔&레지던스 파레스가든홀(010-4541-2580).

▲박상훈·김영숙씨 장남 준성군, 이태일·김정숙씨 장녀 은지양=27일(토) 오전 11시 광주 사디루체 1층 루체홀(062-710-4000).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응원 릴레이 ‘시동’

전남도는 22일 “정철 전남도위원이 ‘전남도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제1호로 고향사랑 상호기부 응원 릴레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철 도의원은 이날 광주 남구의회에서 은봉희 남구의원과 1일 1천원 기부 실천 의미를 담아 30만5천원을 상호 기부했다.

고향사랑 상호 기부 응원 릴레이는 기관과 단

체를 중심으로 1회성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호기부, 개인 간 상호기부 릴레이 형태로 지속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5일 전남도의회 기금운용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정철도위원의 제안으로 시작한 캠페인이다.

정 도의원은 제2호 주자로 박원종 도위원을 지목해 릴레이를 계속 잇기로 했다. /김재정기자



담양농협, 조합원 등에 사랑의 반찬 나눔행사

담양농협협동조합은 “최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하나로마트 앞에서 부녀회장들과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행사는 담양농협의 신선한 로컬 농산물로 만든 열무김치 반찬이 85세 이상 조합원과 명예조

회원 300여명에게 각 마을 담당 직원과 부녀회장을 통해 전달됐다.

김법진 담양농협 조합장은 “행사에 함께한 부녀회장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 공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훈기자

나주 일원실업, 문평면에 난방유·장학금 지원

나주시는 “최근 문평면 소재 전기 설비업체 일원실업이 취약계층 20가구에 450만원 상당의 난방유 등유와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원실업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07가구(250만원 상당)에 가구당 난방유 등유 1드림씩을 배달했으며, 학교 추천을 받은 또 다른 107가구에 장학금 20만원씩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2020년부터 문평면에 각종 물품과 장학금을 꾸준히 전달하는 등 후원의 손길을 이어오고 있다.

박천복 일원실업 대표는 “홀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것 같아 평소 미안한 마음이 컸었다”며 “이번 기부가 난방유가 필요한 가구와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형균 문평면장은 “항상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는 후원자에게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나주=정승훈기자



목포시, 새단장 유달유원지 환경정화 캠페인

목포시는 22일 “지난 19일 행락철 관광객 맞이 위해 새롭게 단장한 유달유원지에서 환경정화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 정화 활동 및 캠페인 행사에는 유달동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유달동 주민, 원도심 상인회, (사)목포시관광협회, 유관 기관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해안가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 활동과 ‘친절·안전·정결·질서·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박홍률 시장은 “행락철을 맞아 앞으로도 유달유원지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 환경 정화 활동과 관광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광주남부뿔 공사 경찰관들 위문

광주지방경찰청은 22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흉기에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그 가족들을 위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청장은 “부상 경찰관들이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치료비, 간병비 지급 등은 물론, 퇴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청장은 “매순간 위험에 노출된 현장 경찰관들의 다양한 위험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보호장비, 안전교육 등을 강화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며 “공권력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범죄에 대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물리력을 적극 사용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 청장은 “업무처리 중 입은 부상에 대한 ‘공상 승인율’을 높이고 보다 높은 수준의 보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와 기존 법과 제도적 제약요소 등을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재영기자

북구 바른체육관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 최우수상

광주 북구 문흥동 바른체육관 소속 ‘심장이택’팀이 최근 광주소방학교에서 열린 제13회 광주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2일 바른체육관에 따르면 해당 체육관에서 합기도를 수련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으로 이뤄진 ‘심장이택’팀은 북부소방서 학생부 대표로 지난 15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주관하고 광주소방학교에서 열린 제13회 광주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이에 따라 심장이택팀은 광주시교육감상 수상과 함께 광주시 대표로 제13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김중성 바른체육관 관장은 “체육관 프로그램에 심폐소생술 정기교육이 있는데, 매년 장비를 지원해주는 문체정 북부소방서 소방관님의 권



유로 우연히 출전한 대회에서 수상까지 하게 돼 기쁘다”며 “이를 통해 성장기에 있는 제자들이 생명 존중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3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대회는 오는 5월29-30일 정부컨벤션센터(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4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장은정기자